

OS환경 급변 인쇄 · 출판계 대처 시급

인터넷을 통해 인터페이스 환경의 핵심을 움켜쥐고 있는 MS사에 대항할 만한 신개념의 OS 환경으로 리눅스가 떠오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눅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MS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항마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MS사와 리눅스의 양대 산맥으로 OS 시장이 구축되면 국내 환경도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한 인터페이스 공간

OS(Operating System)란 어떠한 의미를 지녔을까. 한마디로 컴퓨터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공간을 뜻한다.

사용자의 프로그램, 데이터, 하드웨어 등을 관리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로 태스크·자원·데이터·통신·운용 관리 등이 주된 업무다. 주된 역할은 어셈블, 컴파일,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보유한 OS 환경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히 안정성, 신뢰성, 범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S/W 분야보다 더욱 긴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OS 환경은 광범위한 시장을 형성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S/W의 지원여부에 따라 개발 톨도 이에 맞도록 출시되고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특정한 OS 환경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개발자에게 모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초기 시장 지배력에 따라 특정 OS 개발 업체가 독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종속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됐으며 MS사의 윈도우 계열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됐다. IBM과 함께 인터페이스 환경의 양대 산맥으로 분류되는 매킨토시 컴퓨터의 운영 체제는 '맥 OS'라고 부른다. 초창기에는 매킨토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호칭이었지만 현재는 매킨토시용 OS의 이름으로 정식 등록돼 고유 상표로 인정받게 됐다.

1984년에 처음으로 발매된 이래 매킨토시 OS는 마우스 조작에 의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윈도 표시를 재빨리 탑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뿌렸다. 랩소디(Rhapsody)라는



코드명의 출시와 함께 함께 그 계보를 이어 왔으며 현재는 Mac OS X 10.4 Tiger v까지 출시됐다. 전문가들은 MS의 독보적인 위치가 한 순간에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입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새로운 의미의 OS 환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프리프레스, 프레스, 포스트프레스로 이어지는 인쇄업도 리눅스의 새로운 OS 환경과 Mac OS X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시기가 머지않아 보인다.

기획 및 출력실에서 자주 응용하는 OS 환경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비용 지출'과 '작업 환경 변화'라는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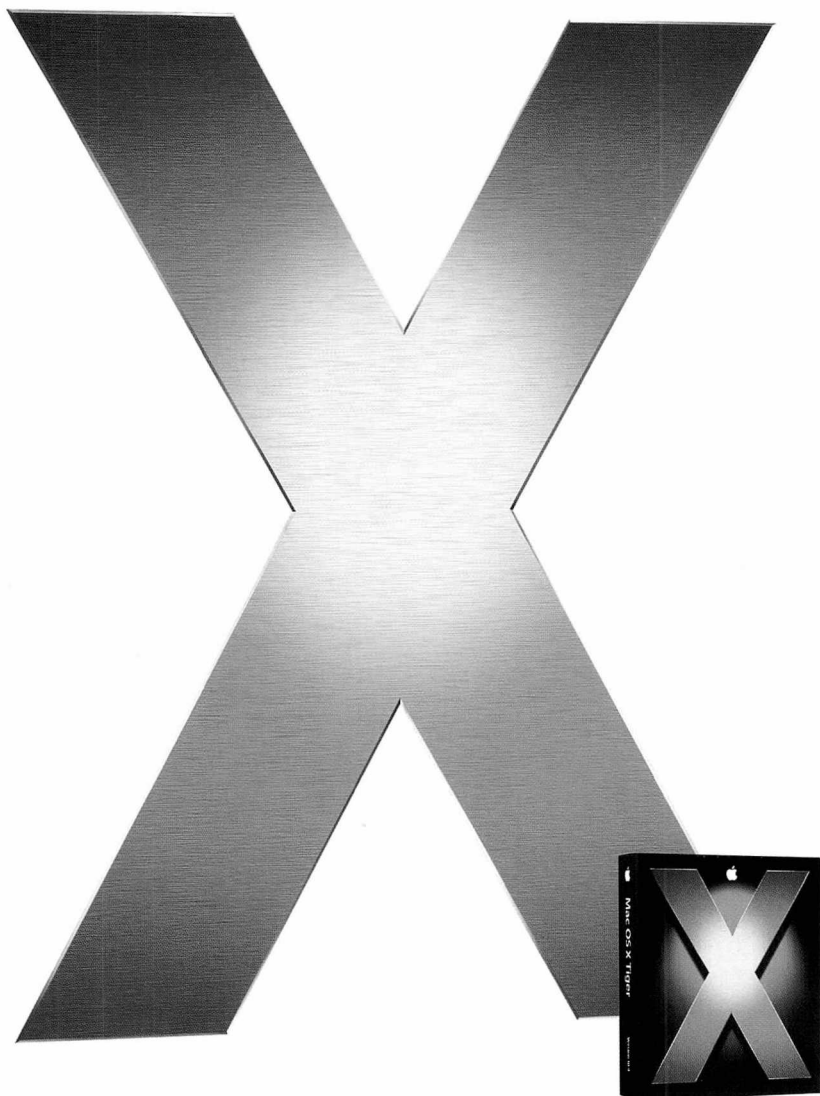
멀티미디어 시장 도래

이러한 거시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미지 편집 부문의 움직임이 애플컴퓨터에 의해 발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하반기 Mac OS X의 새로운 운영 체제인 'Tiger'가 출시됐다. 이전 버전인 'Panther'가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한 안정권을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6개월 전부터 일반 유저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낸 이유는 스팟 라이트나 데시보드와 같은 획기적인 기능이 탑재돼 있었기 때문. 유닉스 기반의 64비트 운영체제로 뛰어난 호환성을 선보인 'Tiger'는 멋진 그래픽 엔진으로 유명세를 뿌리고 다녔다. 또 Mac OS X이라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선보인 'i' 시리즈의 어플리케이션은 호환성에서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윈도우의 OS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이점을 선 보였던 것일까. 먼저 유닉스 기반의 강력한 운영 체제가 그 뒤를 받쳤다. 유닉스는 메모리 관리 능력의 탁월성과 프로세서 관리,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한다. 운영 체제의 핵심은 비에스디(BSD)와 마하(Mach) 3.0라는 유닉스 커널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윈(Darwin)이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지원한다. BSD 커널은 지금까지도 서버용 운영체제나 전문 분야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상의 그래픽과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결합돼 응용된다. 또 각종 화면표시와 이미지 처리를 위한



2D 화면은 퀴즈(Quartz)라고 불리는 그래픽 렌더링 라이브러리가 담당하고 있다. 전자문서변환장치인 PDF(Portable Document Format)에 그 기반을 둔 퀴즈 2D는 각종 서체들이 거칠게 보이는 현상을 제거한 '안티 알리아싱' 기능을 지원하며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빠르게 화면에 표시, 변경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퀴즈 2D가 PDF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OS X의 모든 작업 화면은 화면 캡처 시 윈도우 계열과 달리 PDF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타임은 화질과 압축률이 뛰어난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3D 그

래픽을 처리하는 'Open GL'은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개발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ac OS X이 보유한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다른 프로그램과 충분한 연동성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각화되고 있는 OS 환경

애플컴퓨터와 Mac의 약진에 힘입어 최근 OS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수없이 다양한 PC 관련 기기들이 한정적인 서버 등에서 탈피, 다양한 형태를 보

유하게 됐으며 인터넷의 활성화, 무선기술의 발달로 기술 범위가 점차 다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임베디드 분야의 OS수요가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한 때 철옹성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내며 군림했던 PDA와 스마트폰이 차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만 해도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지 않았다. 리눅스가 등장하며 새로운 OS 환경에서의 기기 출시가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각화됐기 때문이다. 많은 벤더 업체들이 개발을 주저하는 이유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OS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핵'으로 급부상한 리눅스는 공개 소스 코드를 명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거했다.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일반 유저들까지 큰 관심을 보였다. 발매 초창기만 해도 리눅스는 MS의 OS 환경과 견주었을 때 대체 시스템보다는 보완성의 색깔이 더 진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S/W의 부족과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을 끊임없이 수정, 보완했고 호환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PC 서버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일각에서는 당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PC 서버는 지금까지 기업용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MS의 독점적인 OS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려는 PC·서버·S/W 벤더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5년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IT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침체가

를 맞았다. 일반 PC 및 서버 판매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OS 시장을 파고들었다. 기업들의 신규 IT투자가 멈춰서는 바람에 하드웨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OS 시장도 자연스럽게 그 파이가 감소했던 것이다. 탄탄한 자본과 확실한 판로를 구축하고 있었던 MS에게는 호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경쟁 상대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 OS 시장 변화

강력한 검색 엔진의 리눅스와 공개 S/W의 구글이 MS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OS 환경의 판도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일반 IT 관련 종사자들이 “OS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한 반면 기획, 편집 실무자들은 “솔직히 어떠한 환경을 이용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새롭게 다가오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경쟁은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는 개발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MS의 환경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입맛이 ‘모험보다는 안정’을 먼저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OS 9에서 OS X으로 전환을 이룬 지 4~5년이 지났지만 일부 마니아 층을 제외하고 일반 유저들은 OS 9 환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 작업 시 손과 눈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Tiger’ 버전이 출시됨과 거의 같은 시기에 퀵크 6.5 버전이 시장에 선을 보였지만 일반 유저들은 그다지 주목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

아직은 OS X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쉽게 낙관론을 펴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OS X이 주는 다양한

작업 환경보다는 서체 지원과 이미지 전송 등에서 안정적인 호환을 원하는 소비자층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비용 문제다. OS X을 구축하면 이에 대한 지원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S/W의 지원과 활성 방안보다는 비용에 대한 거품이 먼저 빠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 물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자 문서 편집의 획기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PDF가 건재하다. 그러나 지난해 “국산 PDF의 호환세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국내 PDF 개발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또한 “OS X 환경이 국내에서 쉽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은 인쇄물 출력 시 40% 이상이 PDF를 이용한다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만 보더라도 국내 OS 환경이 나아갈 길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체 개방 등 해결책 시급

지난해 하반기에 제시된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설립이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전개될 OS 시장을 놓고 많은 벤더 업체들이 전자 문서의 법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본지 6월호)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한국어도비시스템즈를 주축으로 보관소 설립이 추진 중이다. 또 불법 S/W 확산 방지라는 명분하에 6개월의 시험 가동을 끝낸 ‘삼진 아웃제’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OS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각 분야의 업체들이 새로운 시각을 열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OS X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유틸리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됐던 서체 시장의 개방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TTF(True Type Font)에서 OTF(Open True Type Font)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국내 서체 시장을 선도해 온 모 업체의 매각은 많은 과제를 남기기에 충분했다. 또 웹 폰트를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접목, 다양한 판로 개척에 주력던 업체도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진 못한 채 고전을 면치 못했다. OS 환경이라는 거울에서 서체 시장을 비추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체가 활성화되면 PDF 시장도 병행해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기획 편집실의 OS 환경도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이 이뤄진다. 자신이 작업하고자 하는 서체를 충분히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OTF 서체 개방이 눈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상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서체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곧 ‘채산성 확보 미지수’라는 맹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PDF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탑재된 서체 수가 60여종에 불과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OS 환경의 시발점이 되는 서체 시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OS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변화되는 OS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업체는 이제 도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첨단 기술력을 내세워 다가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서체뿐만 아니라 OS 환경에 접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장흥일기자)